

달라이 라마 탈출 도운 게릴라 전사 이야기

티베트 전사

쿤가 삼텐 데와창 지음
홍성년 옮김
그물코 / 1만2천원



티베트와 전사.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들이다. 우리에게 '티베트'는 달라이 라마의 온화한 미소와 명상, 요가 등 평화롭고 신비스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중국 '시창(西藏) 자치구'로 편입된 '티베트'의 굴곡진 역사를 외면할 수 없다.

<티베트 전사>는 달라이 라마와 정부 요인들이 인도로 탈출하는 것은 도왔던 티베트 전사들의 이야기다. 이 책을 지은 쿤가 삼텐 데와창(1914~1985)은 티베트 게릴라 조직 '추시 강드룩'의 지도자였다. 1914년 티베트 캄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스님이 되기 위해 출가했으나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무역 사업에 투신하게 된다. 이후 성공적인 무역인으로 성장하게 됐지만 중국의 티베트 침략이 가시화되자 상인들과 함께 게릴라 조직에 참가해 전사의 길을 걸었다. 쿤가 삼텐은 1959년 3월 달라이 라마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인도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게릴라 전사들을 지휘했고, 망명 작전은 성공을 거두어 인도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가 수립된다.

이 책의 직접적인 집필자는 쿤가 삼텐의 아들인 도르지 왕디 데와창으로, 아버지의 기술을 받아 적어 책으로 엮었다. 처음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겠다고 했을 때 쿤가 삼텐은 "그런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란다. 이미 티베트 탈출기는 성해달라이 라마의 <나의 조국, 나의 백성>에 다 기술해 놓지 않았느냐"고 거절했다. 하지만 아들의 거듭된 부탁으로 자신의 성장과정과 더불어 게릴라 전사들의 활동을 이야기 했다. 때문에 이 책에는 20세기 티베트의 역사는 물론 일반인의 전통 생활양식과 풍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책에서 "그는 거대한 적들과 맞서면서 나와 내 일행을 안전한 곳으로 호위해 준 용감무쌍한 티베트 게릴라 조직의 지도자였다"며 "그의 인생 역정은 전형적인 티베트인의 삶과 그 가족이 공동체 안에서 누린 평화와 지역 사원의 관계를 생생히 보여준다"고 쿤가 삼텐을 기리고 있다.

책의 초고가 완성되기 직전인 1985년 5월, 그는 책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장식하고 눈을 감았다.

"나의 마지막 소망은 독립된 티베트, 자유와 평화가 깃든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 망명자로서 나는 자유의 중요성을 배웠다. 나의 바람과 소망은 자유를 누리는 행운을 가진 사람 모두가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보다 적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그 중에 티베트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다-을 돕는데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절이 그절이라구요?

'우리 불교 문화유산 읽기' 낸 백유선 씨



"불교 문화유산을 모르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안다고 할 수 없다"는 백유선 교사는 "간단한 기초지식과 애정만 있다면 문화유산을 통해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답사를 다니다보면 흔히 '요새 그 절이 그 절이야', '절에 가봐야 뭐 볼 것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사찰에 가면 산의 분위기나 건물과 불상, 탑의 아름다움 등 보고 느끼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미건조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불교 문화유산 읽기>를 펴낸 서울 보성중학교 백유선(43) 교사는 답사 현장에서 느낀 일반인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우리 문화유산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 사실상 국교 역할을 했던 불교를 모르고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 지정 문화재 중 60%가 넘는 불교 문화재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보물들입니다."

연세대 사학과 재학 시절부터 교단에 선 지난 20여 년 동안 답사를 다닌 그는 사찰에 가거나 불교 문화재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그 매력에 이끌려 불교 문화재를 찾아 나서게 됐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으니 쉽게 답사를 다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버스를 서너 번이나 갈아타고, 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몇 시간씩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답사를 통해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전국의 산사를 찾아다니면서 느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화유산 안내판은 한자투성이에 전문적인 용어로 채워져 있고, 몇 달에 걸친 '증찰발사' 이후 예전의 고풍스런 이미지를 잃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화유산의 보고인 절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교 문화유산 읽기>는 몇 해 전까지 불똥처럼 쏟아져 나온 답사기나 전문 불교문화재 해설서가 아니다. 누구든 불교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한 '입문서'다.

책은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1부 '불교와 절에 대한 이해'는 불교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의 장'으로 볼 수 있다. 불교 문

주역해오

김종영 지음
봉우리 / 1만8천원



그동안 유교 3경(三經)의 하나로, 학문의 목적으로, 혹은 점서(占書)나 수도의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했던 <주역>. 중앙 철학의 최고 정점으로 평가받는 <주역>의 해설서 <주역해오>가 나왔다.

마음과 정신 변혁 추구한 주역

이 책을 지은 김종영 씨는 <주역>을 중국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왕조가 교체될 때 성립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하고 있다. 지은이는 "주역"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변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존 사회과학 이론을 재해석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말

한다. 책에서는 <주역>을 1972년 중국 한묘마왕퇴(漢墓馬王堆)에서 발굴된 <백서주역>과 비교해 풀이하고 있으며, 64괘를 주나라 문왕에서 성왕에 이르는 역사를 담은 기호체계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백서>가 쓰여진 한나라 이전의 글자의 뜻을 중심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풀이해 놓았다.

자연과 호흡하는 요가

에코요가

헨릭 스클리모우스키 지음
구미라 옮김
달팽이 / 7천5백원



건강과 '웰빙(well-being)'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요가와 관련된 각종 강좌와 서적,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요가'가 생태·환경과 만났다.

요가란 단어에 생태·환경을 뜻하는 접두사 'eco'를 붙여 '에코요가'를 탄생시킨 주인공은 플란도 바르샤바 대학과 미국 미시간 대학의 교수인 헨릭 스클리모우스키다. 지은이는 <에코요가>에서 "요가는 삶과 조화를 이루며 호흡하는 것"이며 "건강이나 조화로운 육체를 위해 요가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내면의 평정을 위해서도 요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문명의 폐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기 위해서 '에코요가' 수행자는 생태와 환경에 관한 우리 모든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책에서는 전통적인 요가 책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자세나 신체훈련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명상법과 실천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모든 삶이 수행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생명을 경건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에코요가 수행자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2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3	운명을 뛰어넘는 길	김지수	불광
4	법상에 도가 있다	김세채	모색
5	불자의 가족사랑	정현준	효림
6	아! 붓다	틱낫한	반디미디어
7	내 사주 내가 본다	임태근	여시아문
8	초의	한승원	김영사
9	금강경 강의	무비 스님	불광
10	가슴을 찌르는 부처님 말씀	성우 스님 외	민족사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에시이온 전화: (02)737-0695

마음이 밝으면 신이요, 마음이 편안하면 신이다.



-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 한담 스님 지음 (문사수범회 화주) 200부 한정
- 선화로 이어진 깨달음의 길 / 범주 스님 지음 (속리산 달마선원장) 150부 한정
- 물 흐르고 꽃이 핀다 / 지안 스님 지음 (은혜사 승가대학 원장) 150부 한정
- 나무로 만든 말이 밤에 슬피우니 / 혜종 스님 지음 (갈로사 주지) 200부 한정
- 법 지혜는 허물이 없는데 / 정소 스님 지음 (철보산 선암사 주지) 300부 한정
- 강악산 마루에 일월이 높고 / 일운 스님 지음 (갑악산 백련사 주지) 100부 한정
-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말하고 / 혜성 스님 지음 (삼각산 도선사 화주) 300부 한정
-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 / 성공 스님 지음 (안양사 주지) 300부 한정
- 천지는 나의 더불어 그 뿌리가 같고 / 구암 스님 지음 (전 불화종 종정) 300부 한정
-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영혼의 어머니 / 효란 스님 지음 (오봉산 오봉사 화주) 300부 한정
- 상구보리 하회증생의 본뜻을 찾아 / 천은 스님 지음 (두왕산 대흥사 주지) 100부 한정
- 복이는 길게 울고 뉘사랑은 춤을 추네 / 화산 스님 지음 (보광원 주지) 300부 한정
- 법 밑에 달은 길은 멀어지면 되는 것을 / 원란 스님 지음 (김포 선경암 한주) 200부 한정
- 계곡을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는 법 / 지중 스님 지음 (모악산 불갑사 주지) 300부 한정
- 조근 따라 생겨난 것은 조근 따라 사라지는 것 / 도성 스님 지음 (태종사 범주) 200부 한정
- 사바가 정토요 정토가 사바 / 도우 스님 지음 (삼각산 도선사 열불선원장) 300부 한정
- 푸른 뿔뿔리를 지나며 신발이 쏠도 없네 / 설산 스님 지음 (삼각산 정토사 화주) 300부 한정
- 마음 한번 바꾸면 기가 극락 / 범성 스님 지음 (전 사회복지법인 성리원 이사장) 350부 한정
- 집착하지 아니하면 맑고 적멸에서 벗어난다 / 인환 스님 지음 (동국대 명예교수) 300부 한정
- 지혜로운 자는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자는 생사를 이룬다 / 일유 스님 지음 (지약산 약수암 주지) 300부 한정
- 산책하기 무리 없는 초목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잎이 스스로 지더라 / 혜경 스님 지음 (속리산 범주사 화주) 300부 한정
- 물위에 비친 달빛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 정무 스님 지음 (세운산 석남사 주지) 200부 한정
- 금강산 신령에 바위용이 하늘 높이 날아 오르고 / 대경 스님 지음 (금강산 범사사 선덕) 150부 한정
- 나와 너가 따로 없는 곳에서 연꽃은 피어나고 / 범연 스님 지음 (전 동지정초년의 집 월광) 70부 한정
- 주장자를 들으니 삼천대천세계가 바뀔 것이 하나 없고 / 지성 스님 지음 (팔공산 동화사 주지) 200부 한정
- 허후루, 그대며, 두두물물이 수행이고 좋은 날이고 진리 / 도업 스님 지음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 300부 한정
- 나의 또 하나 다른 생명으로 피어나는 꽃을 본다 / 진관 스님 지음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300부 한정
- 부처도 죽고 조지도 죽고 쇠나무에 꽃이 피니 / 종성 스님 지음 (원제선원 주지) 300부 한정
- 평화통일은 진정한 대승보살행 / 범타 스님 지음 (조국평화통일불교 협회장) 300부 한정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다 함께 큰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스님 별로 한정 판매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큰스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1세트 (책 1권 + CD 1장) 책(양장) + CD = 정가 59,000원 → 특별공급가 25,000원 (배송비 포함) * 10권 구입시 20만 원 (배송비 포함) 구입문의: 02-446-0393 입금계좌: 신한은행 215-01-000491 김민규